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4, No.4 (July 2004) pp.85~95

한국의 속담에 표현된 복식양상 연구

김 재 임* · 박 춘 순**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시간강사* ·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a Phase of Clothing in Korean Proverb

Jae-Im Kim* · Chun-Soon Park**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3. 12. 12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 phase of clothing in Korean proverb.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was as follows:

In the case of headgear, was expose that symbolize handsomeness, conduct of life, personality that display charm and position which is not usage as only head protection. Upper wear was expressing aspect and person's similarity, and was symbolizing conduct of life by meaning of dress and its ornaments according to a person that dress displays that change.

Trousers(bottom wear) was expose that it means aspect or conduct of life(a 4 case, 40%) through site. Overcoat showed that overcoat that is clothes that is symbolizing wearer's situation, aspect and wear most on face because is involved with behavior that is not right in clothes usage is used by standard that foretell personality. Underwear can know that expressed being involved with right behavior, nature by the basic clothes.

I was able to know that I express an attitude of a life or a form through shoe, and the accessories won an minor order but that I have a large influence on a character or the appearance of a person. Silk fabrics expresses position, and hemp cloth expressed by symbol that display ability. Also, silk fabrics had meaning that hint person's background.

Dress and its ornaments that is used in proverb by these result can know that have function as symbolic symbol that display person's nature or situation, aspect that is wearing clothes that is not function as only simple clothes.

Key words : proverb(속담), dress aspect(복식양상), symbolism of proverb(속담의 상징성), headgear(쓰개), shoe(신)

Corresponding author: Jae-Im Kim, E-mail: gumajae@hotmail.com

Ⅰ. 서 론

'옷이 날개다', '못 입어 잘난 놈 없고, 잘 입어 못난 놈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의복에 의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속담에는 이 외에도 의복을 통해 사람의 외형 뿐 아니라 인간 됨됨이까지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역사와 더불어 함께 해온 속담에는 민족의 삶의 모습과 일상의 코드가 고스란히 담겨져 왔음을 감안한다면, 복식양상의 수용태도 또한 자연스럽게 속담의 지평에 녹아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속담의 특징상 피비유항이나 비유항으로 등장하는 대상을 보면 대상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복식이 적용된 속담의 경우, 표상하는 의미와 개념 사이도 마찬가지로 은유로 치환되어 드러난다. 그럼에도 삶 속의 은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담 속의 의복양상에서 삶의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반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속담에서 의복(복식)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예를 선택하여 의복의 종류와 빈도, 그리고 그 속담이 상징하는 바를 밝혀 우리 민족의 의식을 엿보고, 의복을 통한 한국인의 정서를 밝히고자 한다.[1]

Ⅱ. 속담[2]의 정의 및 속성

1. 정의

속담이란 광의로는 어떤 말이라도 일정한 형을 가지고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협의로는 어떤 종류의 교훈, 기지, 상상, 비유, 경계, 풍자 또는 모든 관찰 경험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표현하는 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3]

속담에 대한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세상에 흔히 돌아다니는 알기 쉬운 말(한글학회, 1950)

(2)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격언(이희승)[4]

(3) 민중에 유통되는 관용어구(장덕순)[5]

(4) 비유로 표현된 언중의 시(최창렬)[6]

위의 정의를 보면 속담이 역사성과 구비성과 민중성의전통에서 구현되는 토막말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속담이란 민중들의 경험과 지혜와 교훈에서 우러난 진리를 지닌 간결하고 평범하고 은유적인 관용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범주 안에서 구현되는 '속담이란 역사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세월동안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생활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교훈을 짧은 글 속에 표현한 금언으로서 민중의 입을 통하여 전수되어 내려오는 동안 한 민족과 한 문화의 공통된 가치관을 담게 되는 그 민족의 진리, 혹은 그 문화의 지혜로 형성된 예지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7]. 따라서 '속담은 삶의 규칙이나 지혜를 함축성이 있고, 간결한 형태로 표현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착된 문장이라'[8]라는 Röhlich의 견해는 공감이 가는 속담 정의라고 볼 수 있겠다.

속담의 구성요소에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간결함(함축성)[9]

속담은 대부분 짧은 토막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속담이 간결해야 되는 이유는 쉽게 기억에 남아야 구전이 용이하고 내용 또한 쉽게 전달되고 수용되기 때문이다.

2) 통속성

속담의 통속성은 속담이 일상의 생활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가운데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에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속담은 규범과 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형식으로 평이하고 명쾌하게 전달된다.

3) 감명성(感銘性)

속담은 토막말이지만 단순히 사물이나 대상의 의미전달에 끝나지 않는다. 은유나 상징을 통하여 직설적 인식전달이 아닌 비유와 풍자의 장치로 속담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던지는 것이다.

이들 구성요소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보편적 진리

가 담겨있는 속담 생성과 소통의 필요조건으로 그 내용과 형식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속담의 효과(역할)와 특성[10]

짧은 문장을 이용하여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지적하거나 비근한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비꼬거나, 익살스럽게 말할 때 속담이 사용되기도 하며 따끔한 충고나 실랄한 비평을 할 때 속담은 간결하지만 적절한 표현이 된다. 또는 속담을 씀으로써 어떠한 상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속담은 특성으로는 형식상 과장, 대구, 생략에 의해 상징적, 직감적으로 의미가 표현되기도 하며, 대조 설의 등의 강조법에 의해 관심과 인상을 끌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진리가 속담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본다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삶의 모습과 인간사(처세)와 상호관계, 세태반영과 행불행의 내막, 대상·사물의 속성과 상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결과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속담사전[11], 한국속담사전[12], 한국속담활용사전[13] 등의 세 가지 사전에 올라 있는 속담 중 복식 용어가 들어 있는 속담을 발췌하였고, 같은 어구는 한 종류로 취급하였다. 발췌된 복식용어는 내용분석을 거쳐 의복종류, 의복의 소재, 복식을 이루는 요소인 신과 장신구, 복식관련 용품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의복 종류는 다시 상·하의, 외의, 속옷으로 나누었고, 구체적인 의복종류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는 의복(옷)으로 따로 취급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복식은 빈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복식별 사용빈도를 알아보았고,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복식에 따른 의미(상징)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였다. 각 속담에 사용된 복식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나 상징의 분류기준은 성품, 양상(더러움과 깨끗함 또는 조화와 부조화), 처지(빈부), 능력, 손익, 필요, 심성, 처세(태도)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14].

2. 연구결과

복식관련 용어가 사용된 속담은 모두 322건으로 나타났으며, 쓰개(82건), 상의(10건), 하의(29건), 외투(6건), 속옷(20건), 의복(60건), 신(20건), 장신구(14건), 옷감(48건), 용품(17건), 기타(16건)로 분류되었다.

1) 쓰개

쓰개종류는 82건으로 전체 속담의 25.4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이는 다시 쓰개의 종류에 따라서 망건, 갓 순으로 나타났다. 망건과 갓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망건은 과거 우리나라의 모든 남성들은 머리를 속발하는 수단으로 망건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었고 실제로 망건을 쓴 위에 갓을 썼기 때문이다.

갓의 높은 빈도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크기와 재질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예를 갖추는 가장 기본적인 품목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들 항목은 단순히 머리를 보호하고 장식하는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직위의 상징으로 표징된다. 쓰개 착용의 유무를 통하여 사대부와 상민, 하인(맨머리)의 신분이 구별된다.

쓰개가 상징하는 바는 성품(31.7%), 양상, 처지, 소용,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

<표 1> 속담에 표현된 복식의 종류와 빈도·백분율

품목 / 수치	쓰개	상의	하의	외투	속옷	의복	신	장신구	옷감	용품	기타	계
빈도(건)	82	10	29	6	20	60	20	14	48	17	16	322
백분률(%)	25.46	3.10	9.00	1.86	6.21	18.63	6.21	4.34	14.90	5.27	4.96	100

<표 2> 쓰개류의 빈도와 백분율

빈도(건)	18	14	8	7	5	각 4	3	각 2	각 1	82
백분율(%)	21.9	17.0	9.7	8.5	6.0	각 4.8	3.6	각 2.4	각 1.2	99.1

던 품목인 망건은 성품, 처지, 소용과 관련되었고, 갓은 성품, 양상, 처지 등과, 감투는 처지, 기타와, 삿갓은 언행, 양상과 관련되었음이 나타났다. 이로서 쓰개류는 인격이나 처지, 양상 등 쓰개를 통해 체면을 표현하는 의미와 연관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예) 성품- 도둑질을 하더라도 사모바람에 거드럭 거린다.
처지- 가진 돈이 없으면 망건꼴이 나쁘다.
양상- 갓 쓰고 구두신기

위의 사례를 보면 사모(紗帽)는 관복에 입을 때 쓰던 모자로서 '벼슬아치'로서 위엄을 상징하지만 속담에서의 그 권위는 비꼬임의 정조로 떨어지기도 한다. 도둑질과 사모와의 부적절한 진술이 역설적 비유로 사모는 의미전환 되지만, 쓰개의 표징에서 출발된 것임으로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망건의 경우 먼저 맵시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망건꼴'을 통해서이다. 즉 겉모양인 맵시의 척도로 쓰개로서 망건은 떳떳하지 못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급한 성품과 처지의 양상으로 "급하면 임금 망건 사러 가는 돈이라도 쓴다"[15]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갓 쓰고 망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갓은 조화와 처세에 있어서 불이익됨이 강조되기도 한다. 위의 사례는 대표적 불협화음의 경우이다.

여기서의 불합은 속담의 기능중의 하나인 적절한 훈계로서 어울리는 복식착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는 다른 복식류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격에 맞지 않음을 역설하는 경우에 등장하는 복식정황을 통하여 생활속의 옷매무새를 엿볼 수 있다[16]. '갓'과 '구두'의 부조화를 강조하고 있음 알 수 있는데 '구두'에 해당하는 어울리지 않는 항목의 복식태도를 통하여 바른격식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

갓은 또한 앞서의 쓰개의 상징과 같은 모습으로 갓 쓰고 망신"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모양새와 쓰임새를 통해서도 속담의 기능을 강조시키기도 한다. '끈 떨어진 갓'에서 모양에서 의지할 곳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을 보여주며, '부서진 갓모자가 되었다'에서처럼 갓의 모양과 처한 상황을 동일화시키기도 한다.

2) 상의

상의류는 10건으로 전체의 3.10%로 나타났으며, 종류는 저고리(5건), 중의(3건), 적삼(2건)이었다. 상의류가 상징하는 바는 양상, 처세가 동일한 빈도(4건, 40%)를 보였고, 능력·처지를 나타냈다. 또 종류에 따른 상징은 저고리는 처세와, 중의는 양상과, 적삼은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

<표 3> 쓰개류와 상징의 관계(*백분율은 동일품목 내에서의 수치임)

빈도(건)	5	4	6	2	3	1	3	2	3	2	2	1	2	1	2	1
백분율	27.7	22.2	46.1	15.3	37.5	12.5	42.8	28.5	60	40	50	20	50	25	66.6	33.3

<표 4> 상의의 빈도·백분율과 의미와의 관계 (*상징에서의 백분율은 동일품목 내에서의 수치임)

품목	저고리		중의		적삼	
빈도(백분율)	3(30)		3(30)		2(20)	
상징 / 수치	처세	양상	양상	처세	능력	양상
빈도(건)	3	2	2	1	1	1
백분율	60	40	66.6	33.3	50	50

이상의 결과로 보아 상의는 처세나 양상과 관련되어 주로 사람의 외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 양상- 바지저고리만 앉았다.
여름난 중의로군
처세- 떡 삶은 물에 중의 데치기
기생의 자릿저고리

바지저고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의복구성으로 속담에서는 저고리나 바지, 각각의 의복으로서가 아닌 인간 자체를 의미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의의 경우 '여름난 중의'라 함은 여름내내 입어 명색만 남은 중의처럼 형편이 추락되었으면서 장담만 남아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서 한결같이 사용된 복식의 양상과 사람의 유사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처세는 먼저 '떡삶음', '중의 대침'을 동시에 수행하는 즉 하나를 함으로 둘의 소득을 얻게 됨으로 복식의 세탁을 엿 볼 수 있다. '기생의 자릿저고리'는 잠잘 때 입는 저고리를 말함인데 그 옷이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 복식의 의미가 전이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단지 분내나며 단정하지 못한 기생이 자릿저고리를 입음으로 저고리는 도덕적 규준이 따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복식의 사회화과정과 다름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하의

하의는 전체 속담에서 29건(9.0%)으로 나타났고, 이는 크게 바지, 치마, 잠방이로 나뉘어 각각 12건, 9건, 4건의 빈도를 보였다. 하의는 처세(48.3%)를 의미하는 품목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 바지는 성품을, 치마는 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행주치마, 다홍치마를 따로 다루었고 이들은 처세와 심성을 나타내었다.

예) 양상- 명주바지에 똥싸개
처세- 남의 바지 입고 새 벤다
심성- 열두폭 치마를 둘렀나
소용- 얻은 것이 잠벵이라

먼저 바지 양상의 예에서 '명주바지'는 아주 귀하고 보기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보조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즉 똥싸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멋내기 복식양태의 의미로 서술되는 것이다. 처세 상황의 바지는 내것이

<표 5> 하의의 빈도·백분율과 의미와의 관계 (*상징에서의 백분율은 동일품목 내에서의 수치임)

품목	바지		치마13(41%)					잠방이
			치마		다홍치마		행주치마	
빈도(백분율)	12(41.3)		9(31.0)		3(10.3)		1(3.4)	4(13.7)
상징 / 수치	처세	성품·양상	처세	심성	처세	심성	심성	처세·처지·상태·소용성
빈도(건)	5	3·3	6	2	2	1	1	각 1
백분율	41.6	25·25	4.16	22.2	66.6	33.3	100	각 25%

아닌 남의 복장을 입은 경우로 그려지고 있다. 본래 내 옷이 아닌 남의 옷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행동 또한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바지는 타인 것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하는 도구로서 상징된다.[17]

치마의 예는 열두 폭을 들었지만 여기서는 치마 형태적 정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18]. 치마의 폭이 열두 폭처럼 넓은 지시항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남의 일에 이것저것 참견하는 것을 빗댄 경우로 '열두폭치마'와 '간섭'의 항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잠방이는 농부가 여름철에 흔히 입는 요긴한 작업복이지만 소용으로서 양상을 보면, 거져 얻게 된 잠방이는 오히려 그와는 다른 양상으로 얻은 것이 그리 신통치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복식 양상으로 본다면 흔한 옷이었음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4) 외투

외투의 경우는 전체 6건(1.86%)으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외투가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일반인들의 외투 착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양반이나 특수층에 한하여 착용되었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종류로는 도포, 두루마기, 장삼, 장옷으로 분류되어 손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고(33.3%), 성품, 양상, 처지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가장 겉에 입는 옷이니만큼 개인의 상황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성품- 장옷 쓰고 엿 먹는다.
양상- 도포입고 논을 갈아도 제 멋
성품- 저 중 잘 뛴다니까 장삼 벗어 걸머지고 뛴다

외출 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장옷이 성품에서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못된 짓을 하기위한 도구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가리기 위한 쓰임새는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양상의 경우는 속담에 자주 등장하는 파격의 용모이다. 도포는 사대부들이 즐겨 입던 예복인데 논을 가는 행위와는 격이 맡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멋'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즉 사람은 저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지상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가 좋아서 하면 그만 이라는 점에서, 맵시내기 또한 조심스럽게 연관시켜볼 수도 있겠다.

장삼은 법의(法衣)의 일종이다. 본래 행운유수, 유유자적의 승가에서 달음박질은 거리가 멀다. 속담에서 중이 처한 상황은 이와는 반대이다. 거짓추어 올림에 오히려 한 술 더 떠 거추장스런 장삼마저 벗고 달리기 때문이다. 옷을 벗는 행위나 달리기는 쓸데없는 용기로 그려지는 것이다. 장삼의 형태적 특징인 소매가 넓고 길은 것이 뛰는데 불편함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5) 속옷

속옷은 20건(6.21%)으로 성품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속옷은 속곳, 속옷, 고의·고쟁이·단속곳 순으로 빈도를 보이며, 속옷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 입어야 되는 의복으로서 성품(40%)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상의류에 비해 하의류인 속옷의 종류가 많이 차지하는데 비해 속담의 경우 다양한 종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속담에서의 속옷은 여성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젠더항목과 비유되는 비속화된 속옷으로 고정화된 복식이 아니라 이것을 입는 대상의 부도덕과 비윤리성을 꾸짖는

<표 6> 외투의 빈도·백분률과 의미와의 관계 (*상징에서의 백분율은 동일품목 내에서의 수치임)

빈도(건)	1	1	1	1	1	1
백분률	50	50	50	50	100	100

예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우는 의복으로 분류하였고, 이는 60건으로 전체

<표 7> 속옷의 빈도·백분률과 의미와의 관계 (*상징에서의 백분율은 동일품목 내에서의 수치임)

주제	속옷			속옷		고와·고쟁이·단속곳·속저고리		
				2(10)		각 1(각 5)		
		처세	양상	성공	손익	능력	양상	기타
빈도(건)	7	3	2	1	1	2	1	1
백분률	50	21.4	14.2	50	50	50	25	25

예) 처지- 섣달에 들어온 머슴이 주인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양상- 미친년의 속곳 가랑이 빠지듯.

처사- 고쟁이를 열두 벌 입어도 보일 곳은 다 보인다

속옷은 치마의 부풀림의 형태를 구성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신체보호, 청결유지, 성적표현 등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살과 속옷을 보이지 않게 함은 옷차림과 몸가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속옷을 잘 갖춰 입고 바른 몸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 덕목이었기 때문이다.

양상의 경우 옷맵시가 단정하지 못함을 강조한다. 속곳이 비어져 나온다는 것은 몸단속 면으로 보았을 때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속곳이 받침옷을 넘어 바르게 입어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극히 개인적이며 은밀한 속옷이 희화화된 경우는 자기에게 전혀 관계없는 일에 주제넘게 관여하는 경우인데, 관음적 요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19]. "머슴 보고 속곳 묻는다"에서 속곳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대상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처지로서 고쟁이는 속옷의 가림기능과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처한 정황과를 대비시킨 경우이다. 즉 아무리 여러 번 감싸도 정작 가릴 것은 못가렸다는 의미로서 온전하게 착복되지 못함과 일을 서투르게 하여 이루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이다.

6) 의복

구체적인 의복의 구체적인 품목이 언급되지 않은 18.6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56건이 옷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나타내는 상징은 양상(20%)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옷은 단순히 기호로서의 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항목이라 생각된다. 다른 항목의 복식양식의 코드가 비유적이었다면 여기서의 옷은 속담의 소통적으로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식의 의관태도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속담과 옷의 대응관계가 등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옷이라는 항목이 오늘날의 패션과도 무관하지 않은 우리민족의 패션양상을 그려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예) 양상- 옷이 날개다.

처세- 명주옷은 사촌까지 덥다.

처세- 체수 맞춰 옷 마른다.

심성의 경우 옷을 통하여 인물이 한층 더 훌륭하게 보임을 말함인데 이것은 옷차림의 인식이 드러난 부분이다. 옷을 통하여 심리상태, 취향, 개성,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날개'가 상징하는 것이 가벼움, 상승, 초월, 자유로움으로 본다면, 이 속담을 통하여 옷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20]. 여기서 간과해서 아니 될 것은 옷이 사람을 만들지만 사람 또한 옷을 다스려야 한다는 점에서 단정한 옷차림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는 경우는 더 직접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다.

처세의 항목을 보면 옷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와 신분상승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명주 옷'은 단순하

<표 8> 의복의 빈도 · 백분률과 의미와의 관계 (*상징에서의 백분율은 동일품목 내에서의 수치임)

품목	옷					설복	의복 · 오지랖
빈도(백분율 %)	[illegible](93.3)					2(3.3)	각 1(각 1.6)
상징 / 수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처세	[illegible]	소용	소용	소용 · 기타
빈도(건)	20	12	7	3	2	2	각 1
백분율	35.7	21.4	12.5	5.3	3.5	100	각 50

게 명주로 만들어진 옷의 개념이 아니라 '귀한 몸'으로 사회화된다. 사촌까지 덥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다. 또한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체수를 재고 옷을 마르는 수순을 통하여 일을 처리하고 행함을 비교 하고 있다[21]. 무슨 일이나 격에 맞게 크기에 따라 어울리게 하는 말이지만, 누구든지 사람을 대접할 때는 그 사람의 용모와 차림새를 보아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22].

7) 신

의복을 갖추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신은 전체 20건으로 6.21%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 짚신이 10건(50%)를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짚신은 서민남녀에게 공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신의 원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3]. 신의 상징은 처세(25%), 양상, 성품 순으로 나타나고, 각 품목별 의미를 보면, 짚신이 양상, 신은 처세, 나막신은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으로써 삶의 태도나 모습을 표현함을 알 수 있다. 신발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노동 양태 그리고 여가 생활에 대해 다른 어떤 개인 소유물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텍스트이기도 하다.[24]

예) 양상- 짚신에 국화 그리기
처세- 신 신고 발바닥 긁기
필요- 비오는 날 나막신 찾듯

양상으로서의 짚신은 일반적인 속담에 자주 등장하는 부조화적 모양새를 강조하기 위한 대상으로 나타난다[25]. '짚신'이 지위, 권세, 소유 등과는 거리가 먼 아주 소박한 발싸개로 본다면 '국화'는 분에 넘치는 치장으로 어울리지 않음을 역설하는 의미대상이다. 즉 너무 과분히 호사하게 됨을 빗댄 말이다.

처세로서 '신'은 신발의 기능과 상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발을 둘러싸고 있음으로 가능하지 못한 일련의 일들을 교시해준다. 신으로 말미암아 급한 일인 발(등)긁기가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헛수고만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26]. 여기서 신은 무슨 일을 하려는데 신어야할 과정으로서 순기능이 아니라, 벗어야할 대상으로 그래야 일이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다.

나막신의 경우 비가 오거나 습할 때 신었던 아주 요긴한 신발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필요의 상황에서 오히려 적절하게 신발을 착용하기 위함이 속담에 오면 역설적으로 몹시 아쉬워 찾는 모양으로 전

<표 9> 신의 빈도 · 백분률과 의미와의 관계 (*상징에서의 백분율은 동일품목 내에서의 수치임)

품목	짚신			신		나막신		목화
빈도(백분율 %)	10(50)			5(25)		4(20)		1(5)
상징 / 수치	양상	처세 · 성품	필요 · 기타	처세	처지 · 기타	성품	처지 · 필요	처지
빈도(건)	4	각 2	각 1	3	각 1	2	각 1	1
백분율	40	각 20	각 10	60	각 20	50	각 25	100

환된다. 타자의 직설적 행위를 나무라고 있는 것으로, 나막신이 요긴한 사물이나 사람으로 상징된 것이다. 또한 나막신은 걷는 태도와 비활동적인 것에 대한 정보도 주고 있다. '나막신 신고 대동선을 쫓아간다'에서처럼 실제로 그렇지 못함으로 될 리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8) 장신구

성장(盛裝)을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인 장신구는 속담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표현되어 있다. 종류는 주로 관자, 댕기 등 남성이나 여성에게 기본적인 요소이며 가락지나 동곳 등도 있었다. 이들 장신구는 모두 14건(4.34%)으로 적은 빈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장신구가 갖는 상징은 양상(35.7%)이나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품이긴 하지만 인격이나 사람의 외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관자가 많은 빈도를 보이는 이유는 망건과 마찬가지로 속발의 기본품목으로 망건 끈을 조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자 관자의 재료로 품계구별을 하기 때문이다.

<표 10> 장신구의 빈도 · 백분률과 의미와의 관계 (*상징에서의 백분율은 동일품목 내에서의 수치임)

[illegible]	[illegible]		댕기		은가락지	[illegible]	은동곳
[illegible]	[illegible]		4(28.5)		2(14.2)	1(7.1)	1(7.1)
수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소용 · 기타	[illegible]	[illegible]	성품
빈도(건)	3	3	2	각 1	2	1	1
백분율(%)	50	50	50	각 25	100	100	100

예) 성품- 금관자 서슬에 큰기침한다.
양상-머리 없는 놈 댕기치레 하듯
성품-포도군사의 은동곳 물어 뺍는다.

관자는 망건의 당줄을 걸어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재료에 따라서 관품과 계급을 표시하였다. 성품에서의 '금관자'는 당상관 이상만이 달수 있었던 것처럼 관리의 계급을 상징하는데, '금관자 서슬'이란 함은 벼슬이 높고 돈이 있어 유세함을 의미한다. 즉 역설로서 벼슬아치의 횡포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양상에서의 댕기는 장식겸 머리갖춤으로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겉만 꾸미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대상물이다. 댕기는 머리카락과의 상호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드인데 속담의 정황에서는 정반대이니 겉치레와 부조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곳은 상투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기혼 남자의 수식물이지만 관자와는 달리 품계구실을 하지 않았다. 상류층은 대모, 호박, 마소 등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은동곳'의 은 또한 부귀정도를 들어내는 것으로 고귀함 차가움 중량감을 상징하기도 한다. 성품의 양상에서는 타자인 행위를 통하여 본래의 소중함과 또한 버리지 못하는 손버릇 강조하고 있다 하겠다.

9) 옷감

의복의 재료인 옷감도 비교적 높은 빈도수를 보여 48건(14.90%)이었으며, 그 중 비단(20건, 41.7%), 베, 명주 순으로 비단이 가장 많이 표현되었고, 옷감이 상징하는 바는 처지(33.3%), 능력, 손익 순으로 나타났다. 각 품목별 의미를 보면 비단은 처지를, 베는 능력과 관련되었다. 즉 비단은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데 비해 베는 직조 능력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당금(중국에서 난 비단), 당채련(중국에서 다루어 만든, 나귀의 가죽)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소재도 언급되어 있어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채련은 때가 타 검고 반질반질해진 옷을 비유하기도 한다.

예) 심성- 노닥노닥해도 비단일세
성품- 비단결같다
처사- 비단옷입고 밤길가기
능력- 가는베 낳겠다

일반적으로 비단은 사대부 이상의 궁중에서 많이

<표 11> 옷감의 빈도·백분률과 의미와의 관계 (*상징에서의 백분율은 동일품목 내에서의 수치임)

품목 / 빈도(백분율 %) / 상징 수치	비단			베				명주		융비단		옷감	당금·당체련·돈피·모시
	20(41.6)			13(27.0)				5(10.4)		3(6.2)		2(4.1)	각 1(2.0)
	처지	절·성품	신성·체제·능력·소용	능력	처세	손익	성품·처세·상태	처지·능력	손익	능력	손익	기타·손익	절·형편·성품·손익
빈도(건)	12	각 2	각 1	5	3	2	각 1	각 2	1	2	1	각 1	각 1
백분율	60	각 10	각 5	38.4	23.0	15.3	각 7.6	각 40	20	66.6	33.3	각 50	

사용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귀하고 값비싼 옷감임을 알 수 있다. 해지고 찢어진 곳을 여기저기 깁거나 덧붙인 비단도 비단으로 여긴다는 것은 비단의 희소성과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옷감으로서의 질을 표현 것으로 비단의 '비단결'은 성미가 품질이 곱고 부드러움을 사람의 됨됨이와 기질을 동일성으로 놓고 보는 것이다. 처사의 경우에서 비단은 밤길에 눈에 띠지 않는 것으로 생색내기 위함과는 달리 아무런 소득이 없음을 비꼬는 사례인데 모양내기의 주체도 비단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능력의 양상에서 '베'중에서도 '가는베'를 통하여 가늘고 두 가지 양상을 들 수 있다. 하나는 타자의 손의 결리 매우 고운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는베와 동일화시킨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 속담의 역설적인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늘고 고운 베를 만들지 못하는 솜씨가 무딤을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Ⅲ. 결 론

우리나라 속담에 나타난 복식에 관련된 표현은 322건이며, 각 품목별 빈도는 쓰개, 의복, 옷감, 하의, 상의, 속옷·신, 장신구, 외투 순으로 파악되었다.

쓰개의 경우 머리 보호로서의 용도만이 아닌 장식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맵시, 처세, 인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양상과 사람의 유사성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입은 사람에 따라 복식의 의미가 달라짐을 나타냄으로써 처세를 상징하고 있었다. 하의는 소재를 통해서 양상이나 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는 의복용도에 맞지 않는 행위와 연관되어 착용자의 처지·양상을 상징하고 있어 가장 겉에 입는 의복인 외투가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었다.

속옷은 가장 기본적인 의복으로 바른 몸가짐, 성품과 관련되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은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처세나 필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신구는 소재와 장신구의 종류 등을 통해 값진 소재와는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착용자의 성품과 관련되어 표현되어 있었다.

옷감은 처지, 능력 등과 관련되어 나타났는데 비단은 처지를, 베는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표현되었다. 또한 비단은 사람의 배경을 암시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였다.

고급의 소재나 품목의 경우는 인간의 처신, 처세 등과 연관되어 지배층이나 양반들의 부조리, 비리 등을 꼬집는 내용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인 소재나 품목이 나타내는 것은 양상이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속담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식은 걸쳐지고 입혀지는 단순한 의복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닌 그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 처지나 양상 등을 나타내주는 단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기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진구 (1995). 한국속담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3(1)**. 한국복식문화학회. 속담과 복식태도에 대한 연구의 선행연구로는 김진구의 논문이 있는데 외모와 복식을 함께 다룬다는 점과 복식어휘의 사용빈도와 의미가 제외된 아쉬움이 있다.

2) 이기문 편 (1992). **속담사전**. 서울: 일조각, 서문. 이기문에 따르면 속담이라는 말은 18세기 무렵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는데, 고문헌에는 方言, 常言, 俗諺, 俗說, 野言, 諺, 俚言, 俚語, 鄙諺, 耳談 土諺, 諺語 등의 용어들이 나타난다.

3) 심재기 (1982). 속담의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관악어문연구 7집**, 서울대, p. 215; 송재선 (1993). **우리말속담사전**. 교육출판공사, p. 3. 아직까지 속담을 하나의 학문으로 집대성 시킨 경우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경과를 보면 단편적인 사전의 서문에 의한 간략한 정의 내지는 국어학자와 민속학자들이 개별적인 연구의 틀에 따라 구색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속담에 대하여 믿을만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정의를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4) 이희승 (1961).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5) 장덕순 (1982). **구비문학개설**. 서울: 일조각, p. 187.

6) 최창렬 (1999). **우리속담연구**. 서울: 일지사, p. 416.

7) 정종화 (1995). **한국전통사회의 정신문화구조양상**. 서울: 고려대 출판부, p. 3.

8) Röhlich, L. Mieder (1977). *Sprichwort*: 김종수 (2002). 속담의 구조와 화용적 기능. **독어교육, 제25집**, p. 227. 재인용.

9) 송재선 (1993). **위의 책**. 우리나라 속담의 경우 6~10자로 된 것이 42.15% 11~15자 32.25% 16~20자 13.05% 5자 미만이 5.33%라고 분석한 송재선의 통계를 보더라도 간결과 함축의 특성을 알 수 있겠다. 즉 대부분 속담은 20자 미만인 것이다.

10) 장덕순. **앞의 책**, pp. 188-190; 최창렬. **앞의 책**. pp. 16-17. 장덕순의 경우 속담의 특징을 사회적 소산, 민중생활철학의 반영, 향토성의 반영, 시대상의 반영, 형식의 간결함, 언어생활을 윤택하게 함을 들기도 하는데 최창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1) 이기문 편 (1993). **앞의 책**.

12) 최근학 편 (1991). **한국속담사전**. 서울: 문학출판공사.

13) 김도환 편저 (1995). **한국속담활용사전**. 서울: 한올.

14) 지금까지의 속담분류를 보면 이기문의 경우(한국의 속담)9부류 101항목,최근학(속담사전)의 경우 3부류 73항목 김도환(한국속담활용사전)의 경우 48개항목 410소제목으로 갈랐다. 합리적 분류기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김도환의 기준에 따라 큰 갈래만을 가지고 내용(상징)을 나누기로 한다.

15) 같은 내용으로는 "나라 상감님 망건 값도 쓴다", "상감님 망건 사러가는 돈도 써야만하겠다", "주정뱅이는 상감님 망건살 돈도 술 사먹는다","중의 망건 사러가는 돈이라도"를 들 수 있다.

16) 양상의 부조화에 해당하는 속담은 다음과 같다. "갓 쓰고 자전거 탄다", "개대가리에 관", "개목에 놋 대갈", "개발에 주석 편자", "고양이 수파 쓴 것 같다", "단삼 적삼 벗고 은가락지 낀다", "도포입고 논 썰기",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방립에 쇄자질", "벌거벗고 전동찰까","벌거벗고 환도차기", "사모에 갓끈", "사모에 영자", "삿갓에 쇄자질", "새끼 짚신에 구슬감기", "새 짚신에 구슬감기", "속곳 벗고 은가락지 낀다", "적삼 벗고 은가락지 낀다", "바지 벗고 장도칼 차는 격", "짚신감발에 사립 쓰고 간다", "양복에 갓 쓴 격", "짚신감발에 사립 쓰고 간다.", "짚신에 정분칠하기", "할아버지 모자를 손자가 쓴다".

17) 같은 내용의 속담으로는 "남의 바지 입고 춤추기"가 있다.

18) 이 속담과 같은 유형으로 '치마가 스물 네 폭인가', '치마자락이 넓다'를 들 수 있는데 결국 치마형태의 폭이 넓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19) 이와 같은 속담으로는 "더부살이가 주인마누라 속곳베 걱정한다", "셋방살이가 주인집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칠월 더부살이가 주인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칠월에 들어온 머슴이 주인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20) 같은 내용으로는 "사람은 입성이 날개라", "의복이 날개라", "입성이 날개라"

21) 같은 내용으로는 "체수보고 옷 짓는다", "치수 맞춰 옷 마른다", "치수 보아 옷 짓는다", "체보고 옷짓고 꼴보고 이름 짓는다"

22) 김진구 (1995). **앞의 책**, p. 86.

23) 배도식 (1991). 짚신의 민속적 고찰(2). **한국민속학, 24권**, 한국민속학회. 짚신의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後漢書 東夷傳 韓條에 "布袍草履"에서이다. 이 외에도 여러 문헌에서 짚신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배도식에 따르면 짚신이 발 보호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랑고백, 비방(秘方)의 매개물, 신을 보고 됨됨이를 가늠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24) Laurie Lawlor (2002). Where will this shoe take you?. **신발의 역사**. 임자경 옮김. 서울: 이지북, p. 9, p. 67 Laurie에 따르면 신은 역사적으로 한 개인의 부를 표현 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사회적 지위,정치 성향,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한다.

25) 이와 같은 부조화적 짚신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새 짚신에 구슬감기", "짚신감발에 사립 쓰고 간다", "짚신에 국화그리기", "짚신에 분칠하기", "짚신에 정분칠하기"

26) 같은 내용으로는 "구두신고 발등 긁기", "목화신고 발등 긁기", "버섯신고 발바닥 긁기"